

용산 한국마사회 장학관 매입 무산 전망

지상 18층·지하 7층 규모… 도, 1100억 들여 매입 추진
도 “마사회측 1~8층 임대 추진해 매입 사실상 어렵다”
도의회 행자위 “용역비 10억 반영했는데… 도, 무책임”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해온 서울 시 용산구 한국마사회 장학관 매입이 무산됐다.

지난 1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도 업무보고에서 고시현 중앙협력본부장은 “마사회측이 장학관 건물의 1층부터 8층까지 임대를 요구하면서 매입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한국마사회가 저층부를 개인에게 임대할 경우 사권이 설정돼 (제주도가 매입 추진 시)

매입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매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2026~2027년 2년간 마사회 장학관에 임대 방식으로 입주한 후, 2028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1100억원 (예산금액)을 투입해 매입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한국마사회도 정부의 비업무용 공공재산 매각 방침에 따라 2022년 장학관 건물 매각을 결정했다. 오영훈 전 제주지사는 지난 1월 용산 마사회 장학관의 공익적 활용을 위



이경심 위원장

이 결정되면서 저층부 (2~8층)는 현재 빈 공간으로 남아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마사회측의 임대 요구를 받고 사실상 매입이 어렵다고 판단하고도 의회 보고뿐만 아니라 외부 공개도 하지 않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고석준 의원 (비례대표)이 진행과정을 묻는 질

해 정기환 한국마사회장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 건물은 지상 18층·지하 7층 규모로 건축연면적은 1만 8213㎡로 매각

이 결정되면서 저층부 (2~8층)는 현재 빈 공간으로 남아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고석준 의원 (비례대표)이 진행과정을 묻는 질

문에 고 본부장이 밝히면서 무산 사실이 처음 알려졌다.

고 본부장은 “올해 5월 당시 오영훈 지사가 해결을 위해 마사회측을 만났지만 결국 무산됐고 위성곤 지사에게는 인수위를 통해 내용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경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회에서조차 수차례 질의를 통해 매입 여부에 대해 확인했고 당시 도정은 필요하다고 밝혀왔다”면서 “매입 기본 계획 수립과 중앙투자심사 타당성 확보 등을 위해 용역비까지 10억원을 반영했는데 이제와서 매입이 어렵다고 밝힌 것은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 상황실’ 가동 위성곤 지사 ‘1호 행정명령’ 따라 지난 10일 설치

물가와 소비, 소상공인 매출 등 제주경제지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관리하는 ‘민생경제 상황실’이 가동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 상황실’을 지난 10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민생경제 상황실은 위성곤 지사의 1호 행정명령에 따라 설치된 도지사 직속 조직으로, 경제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신속히 대응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컨트롤타워는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민생경제 비상대책단이 맡는다. 행정부지사는 부단장을 맡고 경제활력국장은 민생경제 비상지원 상황실을 총괄한다.

또 상황실은 생활경제 지원반, 1차산업 위기대응반, 관광시장 안정반, 건설경기 활성화반 등 4개 실무반을 두고 있다.

제주도는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 상황에 따라 한국은행 제주본부와 제주연구원, 신용보증재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등 유관기관도 분야별로 참여해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 기업현황·소상공인·고용 동향 중심이던 경제 데이터를 소비·물가, 관광, 농수축산, 건설 등 분야별 지표로 확대하고 실시간으로 시각화한다.

이밖에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내 제주형 10대 물가관리 중점 품목을 선정, 가격 변동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예정이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협업체계와 세부 매뉴얼을 조속히 갖춰 도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2기 귀농·귀촌 기본교육 제주시, 참여자 40명 모집

제주시는 예비 귀농·귀촌인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제2기 귀농·귀촌 기본교육’ 참여자를 이달 20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27~28일 이틀간 제주테크노파크 세미나실에서 귀농·귀촌인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농촌 정착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총 7개 실용 과목으로 이뤄진다. 주요 내용은 농업창업자금 등 정책자금의 이해, 농작물 재해보험의 이해, 농업인 세무 가이드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은 제주시 마을활력과 (전화 064-728-2961)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sky9795@korea.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모집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귀농귀촌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상반기에 운영한 귀농·귀촌 기본·심화과정과 SNS 활용 마케팅 교육을 통해 94명이 수료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해수욕장 재밌거리 서핑 12일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에 많은 서퍼들이 찾아 서핑을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로컬브랜드-대형유통브랜드 협업” 도, 7월말까지 콜라보레이션 참여 기업 모집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7월 31일까지 제주 로컬기업의 판로 다각화와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주 로컬브랜드×대형유통브랜드 콜라보레이션’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수한 상품을 보유하고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이 대형 유통·브랜드 플랫폼과 협업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국내외 시장 진출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모집은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 ‘에스아시아 (YesAsia)’와 제주 웰니스 브랜드 플랫폼 운영사 ‘에이비티제주’와의 협업으로 추

진된다. ‘제주 로컬브랜드×YesAsia 콜라보레이션’은 제주부터·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추진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YesAsia가 운영하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YesStyle (https://www.yesstyle.com)’ 입점을 비롯해 프로모션·기획전 참여,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교육, 누리소통망 (SNS)·인플루언서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감귤 수확철 서귀포 공공형 계절근로자 ↑

효돈·중문·제주감귤농협 동참… 베트남서 280명 선발
2023년 시작 매년 규모 늘면서 농촌 인력난 해소 도움

올해 서귀포지역 농가에 투입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2배가량 확대되며 감귤과 월동채소 수확 등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서귀포시는 농촌지역 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심화되는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6년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추진, 이달 13~14일 이틀간 베트남 닌빈성에서 현지 면접을 통해 계절근로자 280명을 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번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주체자는 농협 6개소로 기존 제주위미·대정·서귀포농협을 비롯해 제주감귤·중문·효돈농협 등 3개소가 신규로 동참한다. 이들 농협은 베트남 닌빈성의 협조를 받아 현지 면접을 통해 계절근로자 280명 (위미 60, 대정 50, 서귀포농협 50, 효돈 50, 중문 30, 제주감귤농협 40)을 선발한다.

서귀포시와 농협 등에 따르면 공

공형 계절근로자사업은 2023년 제주위미농협을 시작으로 2024년 대정농협이 동참했다. 이어 지난해 서귀포농협이 참여한데 이어 올해 효돈·중문·제주감귤농협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계절근로자 규모도 2023년 41명, 2024년 79명, 2025년 136명에 이어 올해 280명으로 매년 2배가량 몸집을 불리고 있다.

올해 선발 대상 중 제주위미·서귀포·효돈·중문·제주감귤농협에서 고용할 230명은 감귤 수확기인 오는 11월부터, 대정농협에 고용할 50명은 월동채소 수확기인 12월부터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본격 투입된다.

이들 계절근로자 인건비는 남성 11만원, 여성 8만원으로 일반 근로자 남성 15만원, 여성 11만원에 견줘 3/4 (74%가량) 수준으로 농가 경영 부담도 덜어주고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환경과 자원을 먼저 생각합니다”

한라페차장

새단장하여 새롭게 모십니다.

지게차/포크레인/크레인/로더/스키로더/공기압축기/틀러 레미콘/덤프/펌프카/페로다/기중기/천공기/집게차/사다리차

“온라인 중고부품쇼핑몰플랫폼인 지파츠(www.gparts.co.kr)입점”

한국자동차재활용협회 (정부관허폐차)
한국건설기계재활용협회

010-6690-6546 대표허경운

TEL. **064-722-8082** FAX. 064-755-8584

E-mail : hgy6546@hanmail.net

제주시 청풍남4길 34 (영화공업사 맞은편 50m)

한라페차장은 안전하게 정성을 다하여 폐차를 해드립니다!

그랜드보청기

24시간 상담/히트브랜드 대상 수상
보청기 고객감사 특별할인!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충전형 귀속형 보청기

충전형 귀걸이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샅샅들 흔저 전화 주셔서!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 사거리 북동쪽
시정방면 1층 삼겹구이 서광로 225 2층

제주시세무서미물

그랜드보청기

써니트묘목분양

★만감류

- 써니트 - 한라봉 2년 - 카라 2년
-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맛나봉

‘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익(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써니트 접수를 불법 채취해서 자가묘목, 고집, 접순 나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사키, 레드한라봉, 흥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 아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써니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발시 농가나 유통업자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42 농가 · 업체 : 3개 업체

한 라 종 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

감귤 신품종 분양

2027년 공급분 품종안내

만감류

우리향, 달코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라향, 한라봉, 아나마스, 레몬, 탐나는봉

온 주

궁천, 유라조생, 하례조생, 흥진조생, 고림, 오하라베니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근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 표 : 010-2691-1883